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성모 성월)
제30권 27호(다해) 2010-5-30

[묵상]



삼위일체 <15세기, 템페라, 내셔널 갤러리, 런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구분되어 보이시나
한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니
소유한 것을 통해 서로가 하나이시며,
성령께서는 성자로부터
들으시는 말씀만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
말씀 안에 서로가 하나이시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저희이기에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실
성령의 인도로

진리 안에 일치해 계신
한 하느님이심을 깨닫나이다.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하나이신 하느님처럼
저희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나이다.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오전 오후	2:00 10:00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트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 요 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오후	6:00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1:00 1:00 2:30 9:00 1:00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모광기 요셉, 김만성
	(생) 김풍길 바오로, 이상수 다니엘,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홍주희 안나 가정, 정열모 미카엘 & 미영 미카엘라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 김중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지용애
	(생)이근모 마리노, 엄정자 분다, 김소영 요안나, 홍주희 안나 가정, 김정 어거스틴 & 고에리 달린, 서정진 요한 & 희진 히야친타, 최성자 카타리나, 문밖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8,22-31

화답송 ◎주의 이름 은세상에 그 얼마나 묘하신고.

<전례성가 74,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당신 손수 만드신 저하늘과 달과 별들 우러러
보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시나.◎
○천사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하시오,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나이다.◎
○크고 작은 온갖 가족과 들에서 뛰노는
짐승들하며,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물길따라 다니는 모든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복음 요한(John) 16,12-15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5	105
봉헌	378	250,269
성체	361	304,298
파견	324	236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 사람은 그의 실존에 충만한 생명을 계시해 주고 나누어 주는 유일한 말씀을 예수께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정한 그 "영원한 말씀"이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요한 6,68-69) 예수께서도 성부께 드리는 대사제의 기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밝히신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드님을 아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간의 사랑의 친교를 자기 자신의 삶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삶은 바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열려있다. 그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8).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며, 동시에 하느님 자녀들의 생명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온 이 뜻밖의 형용할 수 없는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더욱 새로운 경이와 한없는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뵈겠기 때문입니다."(1요한 3,1-2)

바로 이 때문에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 생명의 존엄성은 그 출발, 즉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목적, 즉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교를 맺기 위한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진리의 빛 안에서, 성 이레네오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예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예찬을 완성한다. "하느님의 영광"은 진정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인간 삶의 상태에 직접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 실제로 이 결과들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며, 성장하기 시작한다. 생명은 선택 것이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 선택 생명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차원 안에서 더 큰 영감과 힘을 발견할 것이며, 새로운 폭과 깊이를 발견할 것이다. (◆계속)

사랑의 일치

삼위일체! 본체로는 하나이시며 위격으로는 삼위이신 하느님에 관한 진리. 아무리 이성적인 능력을 총동원해보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위격이신 하느님이 어떻게 하나이신 하느님으로 존재하시는지요?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신가?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낳으심을 받으셨고, 이 두 분에게서 성령이 발하셨다면 선후관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인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닷가를 거닐는데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멍에 계속 갖다 붓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의아해하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아이는 “네, 지금 바닷물을 뭇방 이곳으로 옮겨 담으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아니, 이 어리석은 아이야. 그 작은 조개껍질로 언제까지 저 바닷물을 그 안에다 옮겨 담겠다는 거냐?” 하고 아이의 무모함을 나무랐습니다.

그 아이는 “설령 제가 이 일을 완성한다 하여도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걸요” 하면서 성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관한 진리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

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이론적인 사색에서 나온 정의라기보다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즉,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본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묵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삼위이신 하느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아듣기 어렵지만,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하나이신 것은 바로 그분들이 나누시는 완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하는 대상이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강한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이미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됨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사랑, 하느님과 인간, 자연이 사랑으로 묶여지는 일치,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하나 되는 교회의 일치. 이 모든 일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이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판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분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천남숙 리디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권오상	권태만	김미성	김재영
	김철민	김형순	김호순	남성철	박완철	박창민
	서성용	성낙호	신대식	신순철	염세종	육재민
	이상철	이인석	이효세	장수창	정열모	조영희
	최상만	최진수	최현찬			
					합계 : \$2,850	

공지사항

- ◆ 오늘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합니다.
 - 월요일이 연방공휴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이어서 오늘 주일(30일) 수업이 없습니다. 단,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세례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45분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 첫영성체 아동 부모 기도 모임
 - 일시 : 6월5일(토) 오후 3시30분 ● 장소 : 성체 조배실
-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모자, 자켓, 여벌옷, 선크림, Repellent cream, 개인물통, 주일학교 티셔츠, 주일헌금
 - 마감일: 6월6일 * 참가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85(5월30일까지), \$195(5월30일 마감이후)
 - 접수: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의 밤
 - 일시 : 6월5일(토)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내용 : 회원을 위한 생미사(오후 5시)와 고 이태석 신부 사진전(오후4시)
 - 문의 : 이인석 비오 간사 ☎(213)258-8665
- ◆ 유빌라테 성가 동호회 정기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
 - 일시 : 6월11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 미사 : 김두진 바오로 신부 집전
 - ☎(909)618-7575
-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메모리얼데이 연휴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노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찌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남명자 데레사 328-0847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	신덕래 데레사 494-1390	신덕래 데레사 494-1390 6/17(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순희 모니카 328-1817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12(토)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6/15(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화수 올리아나 213-248-4576 6/18(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6/9(수)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남현 막시모 793-7733 6/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재연 다두 634-2283 6/12(토) 오후 7시 강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6/12(화)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이희영 안나 544-8245 6/1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6/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도원 다니엘 892-1213 6/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541-0767 6/8(화) 오전 10시30분

생명의 날 담화문

‘인간 생명의 존엄성’...낙태 방지 자정 노력에 힘쓰자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1. 5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한 ‘생명의 날’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날’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생명 존중은 우리 모두의 본분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낙태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면서 우리 사회에 낙태의 심각성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계와 의료계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하거나, 불법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정책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하여 ‘낙태 합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태합법화 움직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진지한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 모든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배아나 태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일 배아나 태아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결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때 배아였고 태아였으니, 태어난 우리가 인간이듯이 태어날 아기도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주교회는 배아도 태아도 엄연한 인간이며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시기에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배아파괴와 낙태는 명백한 중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행위이고, 여성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낙태는 결코 사회적 합의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의 자기 선택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낙태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한 인간의 생사가 달린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열악한 출산환경 등 사회문제와, 자신의 행복만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은 개선되어야 하고, 여성이 편안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와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4. 의료인의 사명은 생명을 침해하는 데 있지 않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사명은 귀한 것이고, 특히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의료인의 사명은 더욱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산부인과 의료인들이 낙태 문제로 갈등과 고뇌에 휩싸여 있습니다. 낙태를 지양하는 의료인들이 병원 운영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제도적 의료 현실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들도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임신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방지하려는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낙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앞서 낙태합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매우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헌법의 인간존엄 정신에 따른다면, 정부나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불법낙태를 현실화하는 일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을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해소해 주는 일입니다. 또한 순전무구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를 위한 법적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차별 금지와 취약자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미혼자 임신이나 장애자 임신 등을 차별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6. 우리 사회에 질게 드리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꽃 피우려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여성계, 언론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낙태를 방지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잃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우선적 기본권인 생명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생명의 파수꾼이 될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특히 평신도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 제16회 생명의 날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